

중-한 번역뉴스에서 나타난 편역 연구

류 스 원
(한국외대)

1. 서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매일 매시간 뉴스가 전 세계에 전달되고 있고 의사소통이 더욱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중국과 한국 언론사에서 모두 다국어 번역뉴스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신화망, 인민망, 중국망, 중국경제망 등 신문사에서 한국어판을 운영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연합뉴스,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등 대부분 신문사는 중국어 번역뉴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 독자들은 언어적 장벽 없이 현지 뉴스를 직접 볼 수 있어 번역뉴스는 정보의 신속 전달, 다른 국가와 국민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번역뉴스는 점차 국제뉴스의 중요한 일부로 자리 잡고 있으나 일반 뉴스만큼의 소통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가독성이 떨어지고 뉴스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강수정(2016: 151)은 중-한 뉴스는 가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번역되지 않았고 일부 번역에서 뉴스라는 장르에 대한 이해와 글쓰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문제는 뉴스 수용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원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기 때

문이라고 생각된다. 번역된 뉴스가 목표문화에서 진정한 뉴스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원문뉴스를 목표 뉴스와 독자의 인지환경¹⁾에 맞게 변형시키는 ‘편역(trans-editing)’이 필요하다.

전통적 등가의 관점에서 본다면 편역은 원문에 대한 과감한 개입으로 번역 충실성에 어긋난 행위이지만 적합성 이론²⁾에서는 이것을 독자와 원활한 소통을 이루기 위한 합리적 행위라고 본다. 뉴스번역의 목적은 외국인 독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며 본질적으로 저자, 번역자, 독자 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번역자는 언어 전환자가 아니라 성공적 소통을 위한 정보 중개자의 역할을 담당하며 편역은 원저자의 소통 의도를 고려해 인지 환경이 다른 목표 독자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정보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뉴스 정보를 처리할 때도 소통과정처럼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는 경제성을 추구하는 특징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적합성 이론은 뉴스 편역 양상을 분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전략을 모색하는 데에 중요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실무에서 뉴스번역의 어려움과 복잡성에 비해 이에 관한 번역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편역에 관한 연구는 국제뉴스에 나타나는 이데올로기적 편역에 관심을 두고 있고 자국 뉴스를 번역하여 외국인 독자의 이해와 관심을 얻고자 하는 번역뉴스에 대한 고찰이 다소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중-한 번역뉴스에 적용되는 편역 전략을 제시하고 적합성 이론을 바탕으로 그 효용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중-한 번역뉴스의 가독성 개선,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도움이 되며 뉴스 번역자의 중개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
- 1) ‘인지환경’이란 언어 사용자가 갖고 있는 모든 구체적인 지식이나 표상을 가리키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오감을 통한 인식작용의 결과나 기억, 추론과정을 통해 개개인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거나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사실을 가리킨다(정호정 2008: 37).
 - 2) 스퍼버와 윌슨(Sperber and Wilson 1995)이 제안한 적합성 이론(relevance theory)은 화자와 청자가 어떻게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이루는지 설명하는 이론으로 번역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2. 이론적 배경

2.1 중·한 뉴스의 구성과 특징

일반적으로 뉴스텍스트는 제목, 리드, 본문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제목은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전달하는 독립적인 의미와 기능을 갖춘 표현 양식이다. 특히 인터넷 뉴스의 경우는 제목만 노출되어 있는 인덱스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목의 중요성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다(박희석 2007: 37). 리드는 누가, 무엇을, 언제 등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부분이고 본문은 육하원칙에 따라 더 구체적인 사실 정보를 기술하는 부분이다. 이와 같은 뉴스의 구성은 중·한에서 대체로 동일하나 작성 방식에 있어 세부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는 뉴스 번역 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이므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제목 작성에 있어서 중국어는 주제목만 나타나는 한 줄 제목이 대부분이지만, 주제목 이외에 어깨제목과 부제목을 함께 쓰는 복합적인 형식도 있다. ‘어깨제목’은 뉴스 내용을 끌어내는 역할로 주제목 앞에 위치한다. ‘부제목’은 부차적인 정보를 보충하는 부분으로 주제목 뒤에 붙인다. 뉴스의 중요도가 높을 수록 이러한 복합제목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다(吳波,朱健平[우파, 주건평] 2011: 261). 이와 달리 한국어 제목은 한 줄 제목만 쓰이고(박희석 2007:3 9) 중국어 제목보다 비교적 간결하다. 또한, 중국어의 리드는 한국어보다 내용이 길고 복잡한 편이다. 중국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리드의 유형은 2-3문장의 서술형 리드이고 두 단락 이상의 복합적인 리드도 자주 사용한다(趙鳳山 [조봉산] 2020: 96-102). 반면, 한국어에서는 요약형 리드를 주로 사용하며 두 문장 이상의 리드를 선호하지 않는다. 문장 수가 많아질수록 기사의 초점이 많아지고, 초점이 많아질수록 해당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인상은 흐릿해지기 때문이다(하준우 2007: 188).

또한, 중국어에서 일반적인 평이한 문체 외에 산문체 뉴스도 많다는 것이 한국어 뉴스와 차별화된다. 산문체 뉴스는 단조롭고 고정적인 뉴스 형식에 벗어나기 위해 산문체의 일부 표현방식을 뉴스 작성에 도입하는 것이다(廖冲[려오충] 2009: 57). 사건을 생생하게 묘사하거나 감성적으로 서술하는 것과 성어나 시구, 함축표현으로 운율감과 형식미를 갖춘 표현을 만드는 것이 산문체 뉴

스의 특징이다. 위에서 언급한 중-한 뉴스의 차이는 목표 독자에게 낮설고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번역자가 적절한 방법으로 증개할 필요가 있다.

2.2 뉴스 편역과 적합성 이론 접근법

뉴스번역에 개입되는 다양하고 과감한 전략들은 번역과 편집의 조어인 ‘편역(trans-editing)’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되어 왔다. 스테팅(Stetting 1989: 371)은 형편없는 글은 제거해야만 하는 번역가의 임무에는 상당한 양의 편집이 포함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편역’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했으며 최종 수용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영화나 티브이 번역, 신문기사 등 같은 특정 유형의 번역에서는 편역이 널리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체스터만(Chesterman 1997: 112)은 편역을 “통사적, 의미적, 화용론적인 번역 전략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파격적인 순서 조정, 다시 쓰기(re-writing)” 등을 포함하는 전략으로 설명했다. 송연석(2013: 13)은 편역을 생략, 추가, 재구성 등 편집이 혼합된 형태를 총칭하는 말로 정의하고 뉴스를 그대로 번역하는 전역(전문번역)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보았다.

뉴스 편역에 관한 연구가 다양해지면서 뉴스 편역과 뉴스 생산을 구분하는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의 개입이 번역학 영역의 편역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최근 편역에 대한 연구는 국제뉴스 생산 과정에서 나타난 ‘이데올로기적 편역’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번역연구의 범위를 저널리즘의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여러 외신 자료를 소스로 활용하여 하나의 뉴스로 종합하거나 원문의도와 다른 기자의 재해석과 의견 첨가 등 양상은 엄격하게 말하면 번역학의 영역에 벗어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원문뉴스를 기반으로 번역하는 것보다 기자의 가치 판단에 따라 뉴스를 재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강수정(2016: 129)에서도 이들 뉴스는 기자가 판단한 가치에 따라 작성된 저널리즘인 영역에 더욱 가깝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저널리즘 영역의 편역을 연구 범주에서 제외하고 번역을 목적으로 하는 번역뉴스에서 도출어 독자와의 소통을 달성하기 위한 ‘소통적 편역’에 주목하고자 한다.

편역된 뉴스는 원문과 많이 다를 수 있지만, 이는 번역의 충실성 규범을 위

반하기보다 더 높은 층위의 충실성, 즉 뉴스의 소통 효과³⁾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편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도착어 텍스트가 해당 목표 독자의 필요에 적합하도록 쓰인 하나의 새로운 원문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트(Gutt 2010: 107)는 적합성 이론을 번역학에 도입하면서 번역의 궁극적 목표는 문자적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적 닮음(interpretive resemblance)을 통해 최적의 적합성(optimal relevance)을 달성하는 것을 주장한다. 독자가 얻은 맥락 효과(contextual effect)가 많을수록, 이에 들어가는 정보 처리 노력(processing efforts)이 적을수록 적합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번역문은 반드시 원문과 일대일로 대응될 필요가 없으며 목표 독자가 무의미한 정보 처리 노력을 들이지 않고 원문에 의도된 함축을 도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뉴스 번역을 바라보면 원문 독자의 인지 수준과 정보 수요에 맞춰 작성된 원문뉴스를 목표 독자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원활한 소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소통을 위한 뉴스번역은 원문뉴스의 정보를 얼마나 충실하게 번역하는 것보다 목표 독자에게 처리할 가치가 있는 신정보를 얼마나 쉽게 전달하는 것이다. 특히, 뉴스라는 장르의 신속성, 간결성을 강조하므로 이러한 인지 노력의 최소화와 효과의 극대화를 더욱 추구할 것이다. 요컨대, 적합성 이론은 뉴스번역에서 나타난 다양한 편역 양상을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하며 편역 방법의 유용성을 살펴보는 데 하나의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2.3 뉴스 편역의 유형

비엘사와 바스넷(Bielsa and Bassnet 2009: 107)은 편집은 모든 뉴스 번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며 번역과정에서 가장 빈번히 수정되는 항목으로 ‘제목 및 리드 바꾸기’, ‘불필요한 정보 삭제’, ‘중요한 배경지식 첨가’, ‘문단 순서 바꾸기’, ‘정보 요약’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선행연구에서 뉴스 편역 유형에 관한 고찰이 많이 이루어졌다. 이미경(2011: 402)은 한-영 간 정보 차이 중개를 위한 편역 전략으로서 정보 추가, 새 정보로 교체, 정보 생략,

3) 의사소통에서 화자의 생각, 의도, 감정이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는 것은 ‘소통 효과’의 달성이라고 말한다.

적합한 정보로 대체 등을 분석하였다. 박미정(2014: 24)은 앞서 비엘사와 바스넷(Bielsa and Bassnett 2009)이 제시한 유형들을 한-일 뉴스 편역에서 확인하였으며 삭제와 요약 등이 함께 결합해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이외에 강수정(2013)은 중-한 뉴스의 번역 전략을 다양한 측면으로 고찰했는데 정보의 추가나 삭제 외에 관형어는 서술어로, 주어의 생성 등 같은 통사적 전환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은 본 연구에서 다루는 편역과는 다르다.

한편, 게이트키퍼⁴⁾이라는 관점으로 뉴스 편역을 연구하는 학자도 있다. 후지이(Fujii 1988)는 처음으로 뉴스 번역과 게이트키퍼를 접목하여 뉴스 번역 시의 개입 유형은 메시지 통제 기능에 따라 ST정보의 삭제, TT독자의 필요에 맞춰 가장 공유하기 쉬운 말로 치환, 필요한 메시지의 보충, ST문단의 재편을 제시하였다. 허스티(Hursti 2001)는 이를 더 발전시켜 게이트키퍼 전략을 ‘전이’와 ‘변형’으로 나누고, 전이에는 어휘적 차용, 패턴의 전이가 있으며 변형에는 삭제, 추가, 대체 등 유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홍정민(2014)은 이러한 관점을 기반으로 뉴스의 번역 전략을 대응역, 삭제, 첨가, 대체, 재구성, 종합 등으로 분류한 바가 있다. 이 중에서 ‘종합’ 전략은 여러 외신뉴스를 종합하여 하나의 국제뉴스를 만드는 것으로 본 연구의 대상인 번역뉴스에서 적용하기가 어려운 유형이다. 보통 번역뉴스는 정해진 하나의 원문뉴스를 번역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상 살펴본 선행연구를 참고하되 삭제와 생략, 교체와 대체, 순서 바꾸기와 재구성 등 개념이 비슷한 유형들을 통합하고 일부 유형을 번역뉴스의 특징에 맞게 조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3. 중-한 뉴스 편역의 양상 분석

3.1 분석 대상과 방법

중-한 번역뉴스에서 편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인민망 한국어판⁵⁾’의 번역뉴스를 대상으로 하였다.

4) 게이트키퍼(Gatekeeping)은 언론 정보학에서 사용해온 개념으로 뉴스 결정자가 뉴스를 취사선택하는 과정을 지칭한다.

이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우선 인민망은 네이버 뉴스 스탠드에 등록된 유일한 중국 언론매체로 영향력이 크며 대표성을 가진다. 또한, 인민망의 번역뉴스는 원래 중국 독자를 위해 작성된 뉴스를 선택하여 다시 한국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므로 이 과정에서 독자가 변화함에 따라 뉴스의 내용과 표현 방식도 불가피하게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다양한 편역 양상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인민망의 한국어 번역뉴스는 내용이 다양하고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자료 수집하는 데에도 유리하다. 뉴스의 유형은 정치, 외교, 경제 등 하드뉴스와 사회, 문화 등 소프트뉴스 모두 포함하며 그중에 정치, 경제, 사회 분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문화 뉴스의 번역은 비교적 적다. 외교 분야의 뉴스는 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에 관한 뉴스로 정치 분야에 속하지만 인민망에서 하나의 섹션으로 제공되고 있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간의 인민망 한국어 번역뉴스를 추출하였고 해당 번역뉴스에서 밝힌 원문출처에 따라 원문뉴스⁷⁾를 찾아 병렬코퍼스로 만들었다. 이렇게 추출된 뉴스 자료는 총 370개이며 분야별로 정치 94개, 외교 59개, 경제 89개, 사회 95개, 문화 33개가 포함된다.

다른 국제뉴스의 편역과 달리 번역뉴스는 일부 언론사의 내부 규정이나 관행에 의해 원문을 그대로 전역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⁸⁾. 특히 인민망의 경우는 뉴스 번역을 통해 자신의 입장이나 가치관을 홍보하는 목적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뉴스를 전역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분석 결과

-
- 5) 인민망은 중국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온라인 사이트이다. 한국어판 번역뉴스에 번역자 이름과 원문출처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번역된 뉴스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6) 문화 뉴스의 번역 이외에 자사 제작한 문화 뉴스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현지 문화 탐방, 체험하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문화가 다른 뉴스와 달리 글로 번역하기보다 동영상으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은 소통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 7) 인민망 한국어판 뉴스는 대부분 ‘신화사’와 ‘인민일보’의 뉴스를 직접 번역한 것이다. 번역뉴스에 원문의 언론사 명칭만 밝혀져 있기 때문에 원문 전문을 찾기 위해 뉴스 키워드로 해당 언론사 사이트에서 검색하였다. 검색되지 못한 일부 뉴스는 분석에 제외하였다.
 - 8) 박미정(2014: 21)에 따르면 한국 종합일간지의 한일뉴스 번역은 모두 ‘전역’이라 편역에서 나타났던 생략, 요약 등 텍스트 개입양상은 전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의 타당성을 위해 전역과 편역을 구분하고 편역 뉴스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류치중(劉其中 2004: 5)에 따르면 전역은 원문의 단락과 표현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번역 유형으로 내용 중요도가 높고 텍스트 길이가 짧은 경우에 많이 이루어진다. 또한, 언어 차이로 인한 필수적인 전환 이외에 내용의 삭제나 추가 등의 개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편역은 목표 독자의 읽기 습관에 적합하도록 뉴스를 과감하게 편집할 수 있는 유형이다. 이를 바탕으로 인민망 뉴스의 전역과 편역 양상을 파악하고 편역 뉴스에서 나타난 전략을 분석하였다.

전략의 유형은 2장에서 검토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 <표 1>로 재분류하였다.

<표 1> 번역뉴스의 편역 유형

번호	번역뉴스의 편역	변화 양상 ⁹⁾
1	삭제	AB → A
2	보충	A → AB
3	대체	A → B
4	재구성	AB → BA
5	분할	A → A1, A2

우선 ‘삭제’는 뉴스 편역에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TT독자에게 불필요하거나 지나치게 세부적인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다. ‘보충’은 ST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배경지식을 TT독자에게 보충 설명해주거나 관련성이 높은 정보를 TT에 보충하는 것이다. ‘대체’는 ST의 내용을 TT독자에게 더 익숙한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재구성’은 정보의 순서나 단락의 편성을 조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할’은 하나의 뉴스를 여러 개로 쪼개어 편역하는 방식으로 국제뉴스 편역에서 제시된 ‘종합’ 전략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번역뉴스의 특성상 ‘종합’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분석 유형에 제외하였고 이를 대신 ‘분할’을 추가하였다. 가독성과 지면의 간결성을 확보하는 목적을 위해 정보량이 많고 길이가 긴 원문뉴스를 편역하는 과정에서 ‘분할’은 충분히 활용

9) 편역 전략에 따라 뉴스 내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부호로 표시하였다. 여기서 ‘A’와 ‘B’는 뉴스텍스트 중의 두 가지 다른 내용이며 ‘A1’와 ‘A2’는 ‘A’내용의 일부분을 의미한다.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편역의 새로운 유형으로 제안하였다.

3.2 분석 결과

분석 대상인 인민망 뉴스가 어느 정도 편역되고 있는지에 대해 아래 <표 2>에서 그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정치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뉴스 분야에 따라 편역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는 <표 3> 분야별 통계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 전역과 편역의 비율

번역 유형	해당 뉴스 수 (%)
전역	141 (38%)
편역	229 (62%)
합계	370 (100%)

<표 3> 뉴스 분야별 전역과 편역

뉴스 분야	전역 (%)	편역 (%)	합계 (%)
정치외교	77 (50%)	76 (50%)	153 (100%)
경제	19 (21%)	70 (79%)	89 (100%)
사회	39 (41%)	56 (59%)	95 (100%)
문화	6 (18%)	27 (82%)	33 (100%)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370개 번역뉴스에서 전역은 141개가 분석되어 38%를 차지하였고 편역은 229개가 분석되어 62%를 차지하였다. 다른 외신 국제뉴스¹⁰⁾의 분석과 비교할 때 편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고 전역의 비중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번역뉴스의 목적과 언론사의 내부 규정과 관행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표 3> 분야별 편역 양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뉴스는 편역이 높게 나타났으나 정치외교 분야

10) 비엘사와 바스넷(Bielsa and Bassnett 2009: 25)에서 외신 국제뉴스 번역의 경우 그 대로 직역하는 것은 흔치 않으며,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변형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현상임을 밝히고 있다. 외신뉴스 번역 그 자체가 뉴스편역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그리고 송연석(2012)에서 뉴욕타임스의 영-한 번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뉴스에 생략, 변이 등의 편역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의 뉴스에서 전역이 절반 이상 차지했다는 것이 눈에 띈다. 이는 정치 관념을 홍보하는 목적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의 다국어 뉴스 번역은 국외 독자를 위한 서비스일 뿐만 아니라 ‘대외선전(外宣)’이라는 속성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뉴스 전역은 목표독자의 이해를 돕는 개입을 거의 가하지 않아 뉴스의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원문 내용이 그대로 보존되어 정보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편, 편역 전략의 사용 양상을 분석한 바는 다음과 같다.

〈표 4〉 편역 전략별 사용 빈도

편역 전략	해당 뉴스 수 (%)
삭제	172 (75%)
보충	172 (75%)
대체	128 (56%)
재구성	43 (19%)
분할	1 (0.4%)

<표 4>에서 나타난 것처럼 본 연구에서 제시한 5가지 편역 전략을 실제 분석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텍스트에서 하나의 전략만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고 여러 편역 전략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략별 사용 빈도를 보면 삭제와 보충은 75% 이상의 뉴스텍스트에서 관찰되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전략으로 나타났다. 자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된 뉴스 정보가 외국인 독자에게 모두 유의미한 것이 아니므로 목표 독자에게 불필요한 정보가 많이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한 독자들은 배경지식이 다르므로 정보성 차이를 증개하기 위한 보충설명도 불가피하다. 그다음에 대체는 56%로 높게 나타났고, 재구성은 19%의 뉴스에서만 관찰되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는 중-한 뉴스는 대부분 역피라미드 구조로 작성되며 정보 순서에 대한 독자 간의 인지관습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분할의 사용은 한 뉴스텍스트에서만 발견됐지만, 실제 활용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어서 4장에서 위와 같은 편역 전략의 적용 사례를 분석하고 적합성 이론의 관점으로 그 효용성을 살펴보겠다.

4. 번역 전략의 적합성 고찰

본 장에서는 번역뉴스에서 나타난 삭제, 보충, 대체, 재구성, 분할 등 5가지 번역 전략의 적용 사례를 분석하고 이러한 전략의 적용으로 높은 적합성을 달성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적합성이라는 개념은 정도에 관한 문제이고 맥락 효과와 정보 처리 노력 두 가지 요인의 상관관계에서 결정된다. 해당 뉴스가 도착어 독자의 인지 속에 갖는 맥락 효과가 많으면 많을수록 적합성이 더 높아진다. 뉴스 정보를 해석하는 데 들어가는 처리 노력은 하나의 부정적 요인으로서 노력이 많을수록 적합성의 정도는 떨어진다. 본 장은 이러한 시각으로 번역 사례를 살펴보고 독자에게 충분한 맥락 효과를 창출하면서 지적 노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번역했는지 분석한다.

4.1 삭제

삭제는 뉴스 번역에서 가장 지배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압축이 뉴스의 생명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뉴스 번역에서도 항상 정보 전달의 경제성, 간결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ST독자를 대상으로 작성된 뉴스를 번역할 때 TT독자에게 불필요하거나 무의미한 정보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러한 정보를 삭제하는 것은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전략 중의 하나이다.

4.1.1 불필요한 정보 삭제

ST제목에 나타나는 어깨제목¹¹⁾이나 부제목은 TT에 잘 쓰지 않는 낯선 형태로 번역문에 이를 삭제한 경우를 많이 확인할 수 있었다.

- (1) ST: 先进制造业产业集群建设步伐进一步加快

45个国家级集群总产值突破20万亿元

직역: 선진 제조업 산업 클러스터 건설 속도가 한층 빨라져

45개 국가급 클러스터 생산총액 20조 위안 돌파

TT: 中, 45개 국가급 클러스터 생산총액 20조 위안 돌파 (2023.03.01)

11) 어깨제목은 주제목 위에 작은 글씨로 작성된 부분이며 뉴스 주제를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사례(1)에서 밑줄 친 부분은 중국어 뉴스의 ‘어깨제목’이며 이는 TT에서 삭제한 것을 볼 수 있다. 어깨제목의 정보가 뉴스의 핵심이 아닌 부차적인 것이며, 무엇보다 이러한 TT에 없는 형식을 그대로 유지할 때 뉴스가 낮설어지고 ‘결함’이 있다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TT독자에게 불필요한 정보 처리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를 삭제하고 주제목만 번역하는 것은 적합성을 높이는 데에 유용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 (2) ST: 会议采访将综合采用多种方式进行, 包括现场采访、网络视频采访、书面采访等, 欢迎在京中外记者参加。欢迎境外记者通过网络视频、书面等方式进行采访。凡希望采访两个会议的记者请提出申请。中央新闻单位记者向新闻中心提出申请; 香港特别行政区记者向中央人民政府驻香港特别行政区联络办公室提出申请; 澳门特别行政区记者向中央人民政府驻澳门特别行政区联络办公室提出申请; 台湾地区记者向国务院台湾事务办公室提出申请; 外国记者向新闻中心提出申请。记者报名截止日期为2023年2月22日。

TT: 회의 취재는 현장 인터뷰, 온라인 화상 인터뷰, 서면 인터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외국 기자는 프레젠테이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 마감일은 2월 22일이다.
(2023.02.17)

사례(2)의 경우는 회의 취재 신청에 관한 뉴스에서 TT독자와 관련되는 회의 취재 방식, 외국 기자의 신청서 제출 장소와 시간 등 정보만 번역했고, 밑줄 친 부분, 즉 ‘홍콩’, ‘마카오’, ‘타이완’ 기자의 신청 방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삭제하였다. 그리고 ‘2023년’이라는 연도도 맥락을 통해 충분히 유추될 수 있는 정보라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례는 TT독자의 정보 수요를 고려해 관련성 낮은 정보를 삭제하여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는 편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밖에 분석 자료에서 ‘사회주의 학습 회의’, ‘레이핑 정신’, ‘군인 훈포 관리 규정’ 등 중국 특색 사상에 관한 뉴스는 제목과 리드만 번역하고 본문을 전체 삭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해당 내용이 TT독자와 관련성이 낮아 원문의 의도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홍보투’가 심하게 느껴져 자칫 독자의 반감을 일으

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 (3) ST: 8时许, 伴随着“哒哒”的马达声, 山东海洋集团的养殖工船缓缓驶近全潜式深海渔业养殖装备“深蓝1号”。锚定完毕后, 养殖工船尾部起重臂旋转, 将一根吸鱼泵递出, 继而伸进“深蓝1号”网箱内部, 刹那间, 一条条活蹦乱跳的大西洋鲑被“吸”上了工船...

2018年7月作为山东“海上粮仓”重点建设项目“深蓝1号”正式启用, 目前已实现大西洋鲑低纬度深海规模化养殖。

직역: 8시쯤 ‘따따따’하는 모터 소리와 함께 산동해양 그룹의 양식선은 천천히 잠수식 심해 어업 양식 장비인 ‘딥 블루 1호’에 접근했다. 닻을 내린 후 양식선 꼬리의 붐이 회전하여 물고기 흡입 펌프를 건네준 다음 ‘딥 블루 1호’ 케이지 내부로 들어가자 순간 팔쩍팔쩍 뛰던 대서양 연어가 작업선에 ‘흡입’되었다...

산둥(山東)성 ‘해상 곡창’ 핵심 건설 프로젝트인 ‘딥블루(Deep Blue) 1호’는 2018년 7월에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현재 대서양 연어는 저위도 심해에서 대규모로 양식되고 있다.

TT: ∅

산둥(山東)성 ‘해상 곡창’ 핵심 건설 프로젝트인 ‘딥블루(Deep Blue) 1호’는 2018년 7월에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현재 대서양 연어는 저위도 심해에서 대규모로 양식되고 있다. (2023.04.27)

사례(3)은 ST에 나타난 산문체 표현을 삭제한 경우이다. 이 뉴스에 ‘중국 양식선 ‘블루딥 1호’가 본격적으로 투입돼 연어의 대규모 양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을 담았다. ST에는 신속한 사실 전달에 중점 두는 것보다 현장감, 흥미성을 강조해 리드 부분에 묘사적인 내용으로 기술했는데 TT에서 이를 모두 삭제하였고 실질 정보를 중심으로 번역하였다. TT독자의 인지환경에서 이러한 묘사적인 리드는 잉여적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대로 번역하더라도 큰 맥락 효과를 주지 못하고 가독성만 떨어지게 한다.

삭제는 뉴스의 간결성을 높일 수 있으나 중요한 정보의 삭제는 오히려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 (4) ST: “地下珠峰”! 9026米 亚洲最深直井诞生

직역: ‘지하 에베레스트산’, ‘9026m’ 아시아 최대 깊이 시추공 탄생
 TT: 아시아 최대 깊이 ‘9026m’ 시추공 탄생(2023.02.16)

사례(4)를 보면 ‘지하 에베레스트산’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이 TT에서 삭제되었는데 이는 은유를 정보 전달을 방해하는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그러나 은유를 활용하면 일상 언어를 사용했을 때보다 독자의 관심을 촉발할 수 있으므로 뉴스에서 매우 효과적인 제목 구성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은유가 생략되면 그 효과도 상실되어 적합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짧은 은유표현이라면 삭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해석하는 데에 큰 지적 노력을 들이지 않고 더 많은 맥락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4.1.2 세부적 정보 삭제

미국의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뉴스 독자들이 뉴스 사이트에 머무는 시간은 평균 3분 4초에 불과하고, 뉴스를 읽을 때 독자의 시선은 ‘F’ 자처럼 위에서 아래로 스캔하듯이 보는 것이다(Thornburg 2011: 104-119). 즉, 자신이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 간략히 보고 다른 문학 작품이나 전문 서적을 읽을 때만큼 많은 시간과 지적 노력을 들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와 같은 독자 특성을 고려하면, 원문의 정보량이 독자의 정보 처리 한도를 초과할 경우, 세부적 정보들을 삭제하고 개괄적 정보나 일부 핵심정보만 번역하는 것이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전략이다.

- (5) ST: 对外贸易量增质升。2022年机械工业外贸进出口总额为1.07万亿美元，同比增长3%，连续第二年超过万亿美元大关。其中，出口总额7400亿美元，创历史新高。从产品结构看，汽车整车、工程机械、发电设备、矿山设备等整机、主机对出口的带动作用持续增强。固定资产投资向好。在投资意愿改善与低基数因素的共同作用下，2022年机械工业固定资产投资呈现较快增长，主要涉及的国民经济行业大类通用设备、专用设备、汽车、电气机械及器材、仪器仪表制造业固定资产投资同比分别增长14.8%、12.1%、12.6%、42.6%、37.8%。

- TT: ◆ 대외 무역 양적·질적 성장
 2022년 기계공업의 대외무역 수출입 총액은 1조 70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 늘어 2년 연속 1조 달러를 넘어섰다.
- ◆ 고정자산투자 호전
 투자 의향 개선, 낮은 기저효과 등이 작용해 2022년 기계공업
 고정자산투자는 비교적 빠른 성장을 보였다. (2023.02.16)

사례(5)는 ST 단락마다 가장 중요한 첫 문장만 번역하고 밑줄 친 부분을 삭제한 경우이다. 또한, 단락 구조를 재구성해서 핵심정보를 훨씬 더 돋보이고 명료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독자에게 복잡한 정보로 인한 시각적 피로감과 처리 노력을 덜어주고 원문의 정보를 더 빠르게 얻을 수 있게 되어 적합성 높은 번역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4.2 보충

뉴스의 정보가 TT문화권에서 생소하고 난해한 경우 번역자가 TT독자의 인지수준에 따라 필요한 배경지식을 제공해야 한다. 번역뉴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충은 인물, 장소에 대한 배경지식과 문화소의 설명이다.

4.2.1 배경지식 설명

- (6) ST: 秦刚同韩国外长朴振通电话
 직역: 친강, 한국 박진 외교장관과 통화
 TT: 친강 中 외교부장, 한국 박진 외교장관과 통화 (2023.01.10)

사례(6)에서 원문에 없던 ‘중국 외교부장’이라는 친강의 신분 정보를 TT에서 추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ST독자와 TT독자 간의 정보 격차를 줄이고 비슷한 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이외에 다음 사례와 같이 원문에 없던 리드를 TT에서 새로 추가하는 양상도 눈에 띄었다.

- (7) ST: ∅

习近平说，我们要扎实推进“一国两制”实践和祖国统一大业。推进强国建设，离不开香港、澳门长期繁荣稳定。.....

TT: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차 회의에서 중요한 발언을 했다.

시진핑 주석은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국가 두 체제)’ 실천과 조국통일의 대업을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3.13)

사례(7)을 보면 밑줄 친 부분은 번역자가 추가한 뉴스 리드이다. 뉴스의 배경정보를 요약하는 리드를 추가함으로써 뉴스의 명확성을 높였고 배경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TT독자의 처리 노력을 감소시켰다.

본문은 제목보다 길이 제한이 적어 더 상세한 보충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과도한 설명이나 잘못된 정보의 보충으로 적합성을 떨어트린 경우도 보인다.

(8) ST: 当地时间3月20日下午，国家主席习近平乘专机抵达莫斯科，应俄罗斯总统普京邀请，对俄罗斯进行国事访问。

직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오후(현지 시간) 전용기로 모스크바에 도착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러시아를 국빈방문하기 시작했다.

TT: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오후(현지 시간) 전용기로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도착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러시아를 국빈방문하기 시작했다. (2023.03.21)

이상 사례(8)에서 ‘모스크바’에 대해 TT는 원문에 없던 ‘러시아 수도’를 추가했으나 적합성이 낮은 편역이라고 볼 수 있다. 적합성 이론에 따르면 모든 의사소통 행위는 발화의 경제성을 추구하며 독자가 의미 추론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언어적으로 명시한다. ‘모스크바’는 문화특수성을 가진 정보가 아니므로 추가 설명이 없어도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9) ST: 熊猫概念经济火起来了。“很多人蹲点两小时，就为了见到花花一面。”游客李可介绍。

TT: 자이언트판다가 또 다시 톱스타 반열에 오르면서 판다를 보기 위

해 쓰촨(四川) 청두(成都)를 찾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한 관광객은 많은 사람들이 두 시간이나 기다리는 건 화화(花花) 얼굴 한번 보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화화’란 2020년 7월 4일 청두자이언트판다번식연구기지지에서 태어난 암컷 자이언트판다를 지칭한다. 화화는 애칭이고 본명은 허화(和花)다. 느릿느릿 움직이고 생김새가 독특하지만 귀요미의 대명사로 통하는 국보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2023.04.12)

사례(9)의 TT에서 밑줄 친 부분은 ST에 없는 ‘화화’에 대한 배경정보를 보충한 것이다. 그러나 번역자의 지나치게 친절한 설명은 뉴스를 장황하게 만들 수도 있다. 최적의 적합성을 달성하려면 원문 이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즉 ‘중국 인기 판다’라는 짧은 설명을 덧붙이거나 ‘화화’의 사진을 첨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 또는 인터넷 기능을 활용해서 배경정보를 링크로 삽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4.2.2 상세정보 보충

뉴스 제목을 번역할 때 본문의 다른 내용을 제목에 추가하는 사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뉴스 제목부터 독자에게 관련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여 독자의 시선을 잡기 위해서이다.

(10) ST: 外交部发言人：希望美方有关人士客观理性看待中国和中美关系
 직역: 외교부 대변인: 중국 및 중미 관계를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라보길 희망

TT: 美 하원 ‘중국 특위’ 설치...中 “중국 및 중미 관계를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라보길 희망”(2023.01.12)

(11) ST: 前2个月我国吸收外资同比增长6.1%

직역: 1-2월 중국 FDI 전년 대비 6.1% 증가

TT: 中 1-2월 FDI 397억 달러 넘어...전년比 6.1% 증가(2023.03.20)

이상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TT는 ST에 없던 새 내용을 추가해서 제목을 더 길게 만들었다. 밑줄 친 부분은 추가한 내용이며 모두 본문 중의 일부이다.

(10)에서 ‘미국 하원은 중국 특위 설치’라는 정보가 뉴스의 핵심정보라고 할 수 있고 (11)에서 ‘397억 달러’라는 금액이 경제 뉴스에서 독자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제목에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세부 정보의 보충에 줄임표 ‘...’를 이용했다는 것도 TT 제목의 작성 관습에 부합하여 자연스럽고 적합성 높은 편역으로 볼 수 있다.

4.3 대체

ST의 정보를 적합성이 더 높은 정보로 대체하는 것도 자주 활용되는 전략 중의 하나다. 적합하지 않은 제목이나 리드를 TT 장르관습에 맞게 바꾸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외에 구체화 정도를 낮추거나 어렵고 특수적인 것을 TT문화에 더 익숙하고 일반적인 것으로 바꾸는 등의 방법도 많이 사용된다.

4.3.1 제목과 리드 부분의 대체

뉴스의 ‘간판’이라고 불리는 제목은 짧은 시간에 핵심정보를 전달하고 독자의 시선을 끄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강수정(2016: 137)에 따르면 중문 뉴스 제목은 하나의 완전한 문장 형태를 갖추어 비교적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 번역하게 되면 한국어 제목 형식에 맞춰 압축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대체 이외에 산문체 형식의 제목을 TT 장르관습에 맞게 더 평이하고 정보가 명확한 제목으로 대체하는 사례도 발견하였다.

(12) ST: 卖爆了! 中国罐头, 被多国“疯抢”! 出口额 近500亿元, 创下近年来新高! 为啥这么火?

직역: 매출 대박! 중국 통조림, 다른 나라 “미친 듯이 구매”! 수출액은 거의 500억 위안으로 최근 몇 년 최고치 기록! 왜 이렇게 핫하니?

TT: 수출액 역대 최고치...외국에 부는 中 통조림 구매 광풍
(2023.03.27)

사례(12)는 TT의 장르관습에 맞지 않은 긴 제목이 압축적으로 대체된 경우이다. 이러한 제목은 ‘대화식 제목’¹²⁾이라고 하며 ST의 특이한 형태이므로 TT

에서 수용하기 어렵다. 제목 내용이 복잡해서 TT독자가 정보를 얻는 데에 많은 지적 노력을 들여야 한다. 이에 번역자는 ST를 기반으로 내용을 요약하고 ‘외국에 부는 구매 광풍’이라는 은유적 표현까지 창조해 제목을 바꿔썼다. 이렇게 편역된 제목은 원문의 정보 의도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 적합성이 높은 편역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어 뉴스는 산문체 특징으로 인해 추상적이고 은유적인 제목을 많이 사용하는데 번역문에서 이를 대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13) ST: 冰雪运动走向百姓, 造福百姓——全国政协委员谈冬奥遗产
 직역: 빙설 운동, 백성과 가까이 백성을 이롭게 —— 전국정협 위원 동계올림픽 유산 언급
 TT: 中 정협 위원 “동계올림픽 유산, 실질적 사업 아이টে으로 활용해야” (2023.03.12)

사례(13)에서 ST는 운율과 형식미를 갖춘 산문체 제목을 사용했다. 그러나 산문체에 관한 인지 지식을 공유하지 않는 TT독자에게 어색한 느낌만 주고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어렵다. 따라서 번역자는 이러한 독자 간의 인지 간극을 인식해 본문의 일부 내용을 인용해서 더 명확한 제목으로 대체하였다. 대체된 내용은 원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와 유사하면서 더 명확하므로 적합한 대체라고 볼 수 있다.

- (14) ST: 外交部发言人就中洪建交答问：两岸猿声啼不住，轻舟已过 万重山
 직역: 외교부 대변인, 중국-온두라스 수교에 대해 ‘협곡 언덕에는 원숭이들 울음소리 그치지 않는데 어느새 작은 나룻배는 칩칩산 중을 지났구나’
 TT: 中 외교부 “온두라스가 중국과 수교하기로 결정한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기초해 내린 정치적 결단” (2023.03.28)

12) 중국 뉴스의 제목 길이는 종이신문의 경우 대부분 20자 내외로 유지되지만, 인터넷 뉴스의 경우는 지면의 제한이 없어져서 긴 제목을 많이 등장하게 되었고, 친근감이 느껴지는 ‘대화식’ 제목도 나타난다(崔瑜[취우이] 2020: 145).

사례(14)의 경우는 고도로 은유화된 시구를 사용한 제목이다. 시구에 익숙한 ST독자는 뉴스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공감대이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하나의 중국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등 함축을 담고 있다. 그러나 배경지식의 차이로 인해 TT독자가 원문의 정보함축을 추론해내지 못해 결국 소통에 실패할 것이다. 이에 번역자는 시구 대신 본문 중의 다른 내용으로 대체하였다. 맥락 효과의 손실이 불가피하나 핵심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비교적 적합한 대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제목을 간판으로, 리드를 진열장으로, 본문을 상품으로 비유한 것처럼 (김병홍 2017: 31) 리드도 제목과 같이 한눈에 정보를 파악하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해야 한다. 중국어 뉴스의 긴 리드를 요약된 내용으로 바꾸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5) ST: 外交部发言人汪文斌22日表示, “北溪”天然气管线爆炸事件影响重大, 俄罗斯提出的决议草案, 核心是推动由联合国开展国际调查, 中方赞同这一思路, 联合国主持开展国际调查有助于同现有国别调查形成合力, 更快查明真相.

직역: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발 사건이 큰 영향을 미쳤고 러시아가 제출한 결의안 초안의 핵심은 유엔의 국제 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이 생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엔의 국제 조사는 기존 국가 조사와 협력하고 진실을 더 빨리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T: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발 사건에 대해 국제적 조사에 나서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2023.03.23)

사례(15)처럼 ST의 리드가 TT로 직역되면 매우 길고 복잡해진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번역자는 원문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TT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리드로 바꿔 썼다. 이때 번역자는 뉴스 편집자의 역할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6) ST: 人间四月天, 春意萌动, 春茶飘香。4月18日, 张家界莓茶品鉴会在人民日报社新媒体大厦举办。

직역: 세상 4월의 하늘, 봄기운이 싹트고 봄차가 향기를 풍긴다. 4월 18일, 장자제 메이차 시음회가 인민일보 뉴미디어 빌딩에서 개최되었다.

TT: 장자제(張家界·장가계) 특산차인 메이차(莓茶) 시음회가 18일 베이징에서 열렸다. (2023.04.19)

사례(16)의 경우는 ST에서 ‘세상 4월의 하늘, 봄기운이 싹트고 봄차가 향기를 풍긴다’와 같은 산문체 표현이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소 ‘메이차’와 장소 정보 ‘뉴미디어 빌딩’ 등이 들어있어 TT독자에게 적합성이 많이 떨어지는 리드 내용이다. 이러한 소통의 방해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TT에서 리드 내용을 바꿔 썼고 직역하는 것보다 훨씬 적합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3.2 적합성 낮은 표현의 대체

(17) ST: 山东海洋集团深远海绿色养殖有限公司首席运营官吴济红介绍, “从打捞上船开始计算, 12个小时内, 这批大西洋鲑就能从深海走上餐桌。”

직역: 산둥해양그룹 산하 심해·외해녹색양식 유한공사 최고 운영책임자 오제홍은 “어획해 배에 올리고 나서부터 계산하면 12시간 이내에 대서양연어가 심해에서 식탁에 오르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TT: 산둥해양그룹 산하 심해·외해녹색양식 유한공사 관계자는 “어획해 배에 올리고 나서부터 계산하면 12시간 이내에 대서양연어가 심해에서 식탁에 오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2023.04.27)

사례(17)은 뉴스에서 중요하지 않은 인물의 직위, 이름 등 구체적인 정보를 ‘관계자’로 단순화하여 대체한 경우이다. TT독자에게 불필요한 처리 노력을 줄여서 적합성 높은 대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른 언어문화권에서 도량사, 수치, 시간 등에 대한 배경지식도 다르므로 이러한 정보를 TT문화에서 사용 빈도가 더 높고 친숙한 것으로 대체

하는 것은 적합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친숙한 정보를 처리하는 데에 들이는 지적 노력이 더 적기 때문이다.

(18) ST: 从各大电商平台上来看, 鲜活小龙虾以4—6钱规格为主, 更大规格的小龙虾价格不等, 但每斤均价大概在70元以上

직역: 각종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싱싱한 샤오롱샤는 무게 4-6돈을 기준으로, 더 큰 샤오롱샤의 경우는 가격이 다르지만, 한 근(500g)당 대략 70위안(약 1만 3571원) 이상이다.

TT: 각종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싱싱한 샤오롱샤는 무게 약 20~30g을 기준으로, 더 큰 샤오롱샤의 경우는 가격이 다르지만, 한 근(500g)당 대략 70위안(약 1만 3571원) 이상이다. (2023.04.26)

사례(18)에서 나타난 무게 단위인 ‘4-6돈’은 한국에서 잘 사용하지 않은 단위이므로 독자가 이해하는 데 많은 처리 노력을 들일 것이다. 따라서 TT에는 ‘20-30그램’으로 바꿔 정보 처리 노력을 효과적으로 덜어주었다.

(19) ST: 2022年家电行业利润总额同比增长19.9%

직역: 2022년 가전업계 이윤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9% 증가

TT: 中, 2022년 가전업계 이윤 전년비 19.9% ↑ (2023.02.23)

제목 작성에 있어 한자와 부호를 활용하는 것은 한국어 뉴스 제목의 중요한 특징이다. 사례(19)의 TT는 바로 이러한 특징에 따라 ST의 일반적인 표현을 한자 ‘比’와 화살표 ‘↑’로 대체하였다. 이를 통해 익숙한 부호에 담긴 의미를 쉽게 추론해낼 수 있으며 압축과 시각적 자극 효과도 나타나 직역하는 것보다 적합성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중-한 제목 번역에만 활용 가능한 전략이며 주로 국가명, 수치 비교 등 내용에서 사용된다.

또한, 다음과 같이 ST에서 특유한 은유나 특색 표현을 이해하기 쉬운 일반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도 적합성을 높이는 유용한 방법이다.

(20) ST: 以确保种子、化肥等物资保质保量到达农民手中, 打好春耕春种第一仗。此外, 还邀请科技特派团下到田间地头为村民“传经送宝”。

직역: 종자와 비료 등 물자의 품질과 수량을 확보하고 봄갈이의 첫 번째 전투를 잘 치렀다. 이 밖에도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파견해 농민들을 상대로 ‘경전과 보물’을 전수했다.

TT: 종자와 비료 등 물자의 품질과 수량을 확보에 노력을 다했다. 이 밖에도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파견해 농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했다. (2023.02.24)

사례(20)에서 밑줄 친 ‘봄갈이의 첫 번째 전투’와 ‘경전과 보물의 전수’라는 ST의 관습적 표현은 TT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워 모두 일반적 표현으로 대체하였다. 은유가 가진 맥락 효과가 일부 상실되었으나 독자의 처리 노력을 최대한 줄일 수 있어 평이함과 가독성에 더 초점 둔 뉴스텍스트에서 적절한 중개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다음과 같이 일반적 표현을 특수한 은유표현으로 대체하는 특이한 사례도 보인다.

(21) ST: 连续4年春节, 武汉这家面馆请环卫工免费吃面

직역: 4년 연속 춘제마다 우한의 한 국수집은 환경미화원에게 무료 국수 제공

TT: 4년 연속 춘제마다 환경미화원에 전하는 ‘사랑의 국수’
(2023.01.31)

사례(21)에서 ‘무료 국수 제공’을 ‘사랑의 국수’로 대체하는 것은 어떤 뉴스 작성의 차이나 문화적인 간극을 중개하는 것보다 은유를 통해 더 큰 맥락 효과¹³⁾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은유표현은 독자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며 짧은 말에 풍부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13) 은유를 사용한 제목은 상투적인 일상 언어의 지루함을 덜어주고 과거 사건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켜 연상 작용을 통해 관심을 촉발하는 효과가 있다. 즉 오늘의 사건과 과거의 사건을 비교해보고 싶은 욕구에 방아쇠를 당기면 호기심과 상상력이 발동해 기사를 읽도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박희석 2007).

4.4 재구성

내용의 가감은 없지만 정보의 순서나 구조를 TT 장르관습에 맞게 조정하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요 정보를 앞애다 배치하거나 복잡한 단락을 읽기 편하게 재편성하는 등의 경우가 있었고, 중-한 제목 장르관습의 차이로 인해 두 줄 제목을 한 줄 제목으로 재구성하는 사례도 있다.

4.4.1 정보 재배치

(22) ST: 机械工业实现平稳增长

2022年利润总额同比增长12.1%

직역: 기계공업 안정적 성장

2022년 이윤총액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

TT: 中, 지난해 기계공업 안정적 성장...총이익 전년比 12.1% ↑

(2023.02.16)

ST제목에서 어깨제목이 나타난 경우에 주로 삭제하지만, 사례(22)처럼 어깨 제목과 주제목의 정보를 재구성해서 한 줄 제목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말줄임표 ‘...’는 휴지의 기능을 발휘하여 앞뒤 정보를 연결하는 데에 사용된다. 이렇게 재구성된 TT는 적합성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4.2 단락 재편성

(23) ST: 国家外汇管理局30日发布数据显示, 今年前三季度, 我国经常账户顺差3107亿美元, 为历史同期最高值, 与同期国内生产总值(GDP)之比为2.4%。

직역: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이 30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중국 경상수지 흑자가 3천107억 달러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2.4%를 차지했다.

TT: 올해 1~3분기 중국 경상수지 흑자가 3천107억 달러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이 30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해당 기간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같은 기간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2.4%를 차지했다. (2023.01.01)

단락의 재편성은 주로 뉴스의 리드와 본문 부분에서 사용되는데 사례(23)은 뉴스의 리드 부분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어 뉴스의 리드는 한국어보다 길고 복잡하므로 압축된 리드로 대체할 수 있다. 또한, (23)과 같이 한 단락의 리드를 두 단락으로 재구성할 수도 있다. TT를 보면 첫 단락에는 뉴스의 시간과 수치 등 핵심정보만 제시했고 다른 부차적인 정보를 두 번째 단락으로 편성하였다. 재편성된 리드는 TT독자에게 더 자연스럽고 해석하기 쉽다.

4.5 분할

원문뉴스를 여러 개로 쪼개어 편역하는 ‘분할’은 본 연구에서 새로 제안한 전략으로 취합한 자료 중에서는 한 가지 사례만이 분할에 해당하였다.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전략이지만 뉴스 편역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뉴스에 담긴 정보가 다양하고 분량이 많을 경우에 정보 처리에 소요하는 시간과 지적 노력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에 독자가 정보 처리를 포기할 수 있어 원문의 소통 의도도 달성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긴 뉴스를 두 개 이상의 짧은 뉴스로 나눠 번역하는 것은 하나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제목과 리드의 변형과 단락의 재구성 등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24) ST:

外交部长秦刚就中国外交政策和对外关系回答中外记者提问

十四届全国人大一次会议在梅地亚中心举行记者会，外交部长秦刚就中国外交政策和对外关系回答中外记者提问。

(본문 생략)

직역:

친강 외교부장, 중국 외교정책과 대외관계에 관한
내외신 기자 질문에 답해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가 미디어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친강 외교부장은 중국 외교정책과 대외관계에 대해서 내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본문 생략)

TT1:

친강 “中, 세계 평화의 건설자…인류가 직면한 공동 도전 해결 위해 중국 지혜와 중국 방안 기여할 것”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차 회의가 7일(화요일) 오전 10시 미디어(梅地亞)센터 다기능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친강(秦剛) 외교부장은 기자회견에 참석하며 내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아래는 ‘중국 외교’에 관한 답변문이다.
(본문 생략) (2023.03.07)

TT2:

친강 “중국식 현대화는 전 세계 평화, 정의, 진보 역량의 성장 과정”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차 회의가 7일(화요일) 오전 10시 미디어(梅地亞)센터 다기능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친강(秦剛) 외교부장은 기자회견에 참석하며 내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아래는 ‘중국식 현대화’에 관한 답변문이다.
(본문 생략) (2023.03.07)

사례(24)는 하나의 ST가 10개의 TT로 분할된 경우이며 다른 번역보다 그 양상이 아주 특이한 경우다¹⁴⁾. ST는 중국의 새 외교부장이 취임 후 주요 외교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뉴스로 ‘중국 외교’, ‘중국식 현대화’, ‘중러 관계’, ‘글로벌 거버넌스’, ‘중미 관계’, ‘타이완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일대일로’, ‘중일 관계’, ‘인태 전략’ 등 10여 개 주제에 관한 내용을 총 1만 자 정도를 담

14) 원문뉴스가 매우 길어서 본고는 제목과 리드 부분만 제시했고 분할된 TT 중에도 2개만 예시로 제시하였다.

았다. 내용상 중요도가 높아 삭제 전략도 쉽게 사용하지 못한다. TT의 길이 제약과 독자의 처리 용이성을 고려해 원문 주제별로 다수의 TT로 분할한 것이다. 분할된 뉴스들의 제목과 리드도 해당 내용에 따라 조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분할 양상이 번역뉴스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료를 확보 및 분석할 필요가 있다.¹⁵⁾

5. 결론

각 언론사에서 해외 독자를 위해 제공하는 ‘번역뉴스’는 정보 교류와 문화 간 소통을 이루는 중요한 경로이다. 뉴스 번역의 주목적은 목표 독자에게 정보를 정확하고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며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편역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한 ‘번역뉴스’에서 나타난 편역 양상을 파악하고 편역 전략의 유용성을 적합성 이론의 관점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삭제, 보충, 대체, 재구성, 분할 등 5가지 전략의 사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고 그중에 삭제와 보충이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분할의 경우는 한 사례에서만 발견되었고, 내용이 길며 중요한 뉴스를 최대한 완전하고 간결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짧은 뉴스로 나누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이 전략은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전략이나 뉴스 편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분석 자료에서 번역자가 중-한 뉴스 작성의 차이점을 적극적으로 증개하고 번역뉴스의 수용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깨제목’과 같은 한국어 뉴스에 없는 형식의 경우는 삭제하거나 주제목으로 재구성하고, 긴 제목과 리드의 경우는 압축된 다른 내용으로 대체하고, 중국어 뉴스에 자주 나타난 산문체 표현은 삭제하거나 다른 평이한 표현으로 대체하는 등 방법으로 한국어 뉴스의 장르관습에 맞게 편역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적합성 이론의 관점으로 편역 사례를 분석하였고, 번역자가 편역

15) 보조자료로 사용한 ‘연합뉴스 한-중 번역뉴스’에는 ‘가요 소식’이라는 특정 뉴스 유형에서 분할 전략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전략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번역 시 목표 독자의 인지 수준을 잘 파악해서 원문 이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목표 독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기존 배경지식과 관련성이 없는 정보를 제공하면 적합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 둘째로, 배경지식의 차이로 인해 목표 독자에게 정보를 보충해야 할 경우, 최대한 간결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 번역된 내용이 원문보다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길어지면 높은 적합성을 달성하기 어렵다. 셋째로, 제목 번역에서 은유적인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은유적인 표현은 짧은 말에 풍부한 함축 의미를 담고 있고 독자의 시선을 끌어 뉴스를 읽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번역에서 적절하게 활용하면 적합성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인민망에서 나타난 일부 사례만 분석하여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으나 번역뉴스의 번역 양상을 전반적으로 파악해 분할이라는 새로운 유형을 확인했다는 점과 적합성 이론의 의사소통 원리로 번역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뉴스번역 실무나 교육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수정 (2013) 「방송뉴스 번역양상에 관한 연구」, 『통번역학연구』 17(1): 21-23.
 강수정 (2016) 「인민일보 번역뉴스의 가독성에 관한 연구」, 『중국문화연구』 32: 123-154.
 김병홍 (2017) 『신문 언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서울: 역락.
 노승엽 외 옮김 (2009) 『글로벌 뉴스와 번역』, 서울: 도서출판 동인. (원서: Bielsa, Esperanca and Susan Bassnett (2009) *Translation in Global News*, New York: Routledge.)
 박미정 (2014) 「한일뉴스번역과 번역가의 개입양상 분석」, 『일본어문학』 26: 1-27.
 박희석 (2007) 『클릭을 부르는 인터넷 뉴스 헤드라인』,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송연석 (2012) 「뉴스번역의 번역규범 - 텍스트 규범을 중심으로」, 『번역학연

- 구』 13(5): 59-82.
- 송연석 (2013) 『제도적 번역으로서의 외신번역에 대한 비판적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미경 (2011) 「도착언어 독자 지식을 고려한 뉴스번역 전략: 관련성 이론의 관점에서」, 『Linguistic Research』 28(2): 385-404.
- 정호정 (2008) 『제대로 된 통역 번역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 홍정민 (2014) 「한영 뉴스번역자의 텍스트 개입 양상에 관한 고찰」, 『번역학 연구』 15(1): 365-413.
- 하준우 (2007) 『기사쓰기 워크북』, 서울: 나남.
- Chesterman, Andrew (1997) *Memes of Translation: The Spread of Ideas in Translation Theory*, Amsterdam: John Benjamins.
- Fujii, Akio (1988) 'News Translation in Japan', *Meta* 33(1): 32-37.
- Gutt, Ernst-August (2010) *Translation and Relevance: Cognition and Context*, second edition, New York: Routledge.
- Hursti, Kristian (2001) 'An Insider's View on Transformation and Transfer in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n English-Finnish Perspective', *The Electronic Journal of the Department of English at the University of Helsinki*, 1, Translation Studies edited by Ritva Leppihalme. <https://blogs.helsinki.fi/hes-eng/volumes/volume-1-special-issue-on-translation-studies/>
- Sperber, Dan and Deirdre Wilson (1995)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Oxford: Blackwell.
- Stetting, Karen (1989) 'Transediting - A New Term for Coping with the Grey Area between Editing and Translating', in Graham Caie, Kirsten Haastруп, Arnt L, Jakobsen et al. (eds), *Proceedings from the Fourth Nordic Conference for English Studies*, Copenhagen: Department of English, University of Copenhagen, 371-382.
- Thornburg, Ryan M. (2011) *Producing Online News - Digital Skills*, Stronger Stories [M]. US: CQ Press.
- 崔瑜 [취우이] (2020) 「《人民日報》微信公衆号的新聞標題語言特点研究」

- [‘People’s Daily’ WeChat Public Account News Headlines Language Characteristics Study], 『視听』 [ShiTing] 6: 143-145.
- 廖冲 [리오충] (2009) 「新聞寫作散文化芻議」 [On the Prose Style of News Writing], 『南宁師范高等專科學校學報』 [Journal of Nanning Junior Teachers College] 26: 57-59.
- 吳波, 朱健平 [우보, 주첸핑] (2011) 『新聞翻譯：理論与實踐』 [News Translation: Theory and Practice], 浙江大學出版社 [Zhejiang University Press].
- 趙鳳山 [조봉산] (2020) 『新聞寫作技巧』 [News Writing Skills], 中國文史出版社 [China Culture and History Press].

[Abstract]

A Study on Trans-editing in Chinese-to-Korean Translated News

Si-yuan Liu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trans-editing of Chinese-to-Korean translated news and analyze the types and usefulness of translation strategies. The finding shows that, all five strategies suggested in this study, including deletion, addition, substitution, reorganization, and division were identified, with deletion and substitution being the most actively used. Although division was found in only one case, its significance lies in revealing new possibilities for news trans-editing. Furthermore, the analysis data showed that translators actively engage in trans-editing elements such as “shoulder titles,” “long titles and leads” and “prose expressions” unique to Chinese news, thereby enhancing the acceptability of translated news. Through an examination of trans-editing cases using relevance theory, numerous insights were derived. It emphasized the significance of accurately gauging the cognitive level of the target audience during trans-editing. When supplementing information to the target audience, it is crucial to keep it as concise as possible. Effective utilization of metaphorical expressions in title trans-editing can significantly enhance relevance.

Keywords: translated news, trans-editing, Chinese-to-Korean translation, news translation, relevance theory

주제어: 번역뉴스, 번역, 중·한 번역, 뉴스 번역, 적합성 이론

202 번역학연구 ● 제24권 4호

류스원

한국의국어대학교 KFLT전공 박사과정 수료

lsylove9002@hotmail.com

관심 분야: 중-한 번역, 뉴스 번역, 편역 전략

논문 투고: 2023년 11월 15일

1차 심사 완료: 2023년 12월 1일

2차 심사 완료: 2023년 12월 15일

게재 확정: 2023년 12월 19일